

대전직할시 치과의사회 창립총회 성료 초대회장에 이수종씨 선임



〈忠南支部 俞炯植회장이 새로 탄생한 大田直轄市支部 李秀鍾회장에게 會旗가 授與되고 있다〉

충청남도 대전시가 1989. 1. 1 일자로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전시치과의사회의 자동적인 지부결성을 위한 창립총회가 지난 19일 대전시 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치협 李鍾守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9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로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의 16개 지부가 모두 17개 지부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지부창립을 위한 “대전직할시 치과의사회 창립발기위원회”를 구성 총회준비 작업을 해왔으며 발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수종씨를 선임한바 있었다.

대전시치과의사회 정상훈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임철중부회장의 경과보고와 이수종발기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종수 치협회장과 유형식충남지부장에 축사가 각각 있는 다음 본회의에 들어갔는데 지부결성만을 위한 총회에서 ①회칙제정 ②임원선출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발기위원회에서 초안으로 제



〈대전직할시지부 창립총회 광경〉

시한 회칙 제정에 있어서는 진지한 토론끝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했다. 다음 무기명투표방식에 의한 참석회원 90명중 이수종씨가 60표를 얻어 대전직할시 치과의사회 초대회장에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은 김명수, 이필제, 김성수씨를 각각 선임하고 오는 3월에 개최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감사선출이 있을 예정으로 있다.